

꿈꾸일언 어리석은 자는 탐욕으로 스스로 몸을 묶어 피안에 건넌을 구하지 않나니 애욕을 탐하는 까닭에 남을 해치고 또 스스로를 해친다.
(법구경·애욕품 491절)

東大新聞

발행인: 임영민, 발행처: 동국대학교, 발행일: 1996년 11월 25일, 구독료: 1000원, 광고료: 2000원, 전화: 260-3491, 팩스: 260-1270, 780-714, 707(770-2057)

교육개혁시리즈

⑧ 교양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주목할 만한 점은 학교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정보화 시대가 될 미래사회를 대비,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 등의 실용교육 위주로 편성된 점이다. 이번 1학년용 대상으로 교양필수 과목으로 채택된 9개과목중 5개과목이 영어와 컴퓨터 실습에 관련된 것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교양 필수과목 이수확률이 10학점에서 영어와 컴퓨터 실습이 6학점을 차지, 건학이념 관련과목보다 국가간 경쟁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

교양과목을 교양필수와 교양선택 2가지로 구분되며 필수과목은 건학이념 관련과목과 학문수행에 필요한 실기중심의 도구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현재 자야와 명상 I, 자야와 명상 II, 불교와 인간 3과목이 있으며 실기중심에는 컴퓨터 실습 I, 영어회화 I, 영어회화 II, 실용영어 I, 실용영어 II, 국어작문의 이론과 실제 등의 과목이 있다.

한편 선택과목은 학문관심 영역별 7가지로 세분화되어 있고 학생들은 이중 교양선택의 6개 영역 이상에서 각 3학점 이상 반드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1영역- 불교와 문화, 2영역- 문화와 예술, 3영역- 외국어, 4영역- 철학과 역사, 5영역- 사회의 이해, 6영역- 기초과학, 7영역- 자연의 이해와 기술 등으로 분류돼 있다. 교양 선택증 작년과 비교해 변한 것이 있다면 89~95년도 입학자는 모든 단과대가 25~26의 최저 이수학점을 정해놓은 반면 올해 이과대에 입학한 학생은 35학점, 그밖에 사범대는 32학점, 예술대는 33학점의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등 평균적으로 전체 최저이수학점이 2.2점 씩이나 늘었다는 점이다.

교양과목 선택에서 단과대마다 틀린 부분은 그 단과의 특성을 살려 인문·사회계열은 제 2외국어, 포괄해 2강좌 이상을 취득해야하며, 자연계열은 교양 제6영역에서 1.1로 구성된 통일교과목 1과목(2강좌) 이상과 7영역중 특정과목 1개 강좌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상용 기자)

‘안타까운 기원학사’

재계약 맺지못해 문제...장기적 대안마련 시급

본교 기원학사 기원학사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손정일·불교4 이하 비대위)는 지난 20일 불상 앞에서 '불교학부 기원학사 사수와 불교학부 이외의 단과대 학생들을 위한 기원학사 건립안 마련'이란 주제로 집회를 가진 뒤 '수행도량 기원학사 사수와 불교대학 장기적 발전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용명정진' 병행할 무기한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원학사 부지는 스님들의 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의 소유로 이 기원학사는 매년 10월 31일 사용계약이 만료되며 불교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돼 오다가 금년에는 학교측이 재계약을 맺지 못해 기원학사 학생들이 학교측에 입장표명을 촉구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지난 15일 본교 이사장 및 총장앞으로 기원학사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으며 19일에는 김종욱 관리처장, 선상규 학생부처장 등 학교관계자와 기원학사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나 진전없이 결렬됐다.

학교당국 또한 이번 기원학사 문제로 인해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김생민 부총장, 정운 학생계장 등 학교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거친 후 다음날 21일에는 직접 기원학



△ 지난 20일 불상 앞에서 70명의 기원학사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수행도량 기원학사 사수와 불교대학 장기적 발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용명정진' 병행의 모습.

사 와 중앙승가대를 방문,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비대위 손정일 위원장은 "학교측이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지금 기원학사들은 아무

런 대책없이 12월말까지 기원학사 이에 대해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재계약들 여러방면으로 기원학사 문제해결에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원학사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해결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책마련의 부재와 기원학사들과 승가대 양쪽의 입장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해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재계약들 여러방면으로 기원학사 문제해결에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원학사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해결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책마련의 부재와 기원학사들과 승가대 양쪽의 입장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면학분위기 조성위해 수강신청 방법변경

내년 3월부터 PC이용...정정시 인원제한

교무처(처장=박부관·교육학)교무과에서는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9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실시한다.

교무과에서는 기존의 수강신청·정정의 혼란과 폐단을 없애고 학기초 수업운영의 조기안정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강신청방법을 변경했는데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종전의 OMR카드를 이용한 수강신청방법에서 앞으로는 LAN으로 연결된 교내의 실습실과 연구실에 있는 모든 PC를 이용해 실시하게 된다. 단 이번 12월4일부터 6일까지 수강신청은 OMR카드를 이용하여 97년 3월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할 수강신청은 PC로 하고, 97년 2학기 부터는 수강신청과 정정 모두 PC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양필수과목, 실험실습과목, 회화교과목, 교양선택과목 등은 실험실습실, 강의실의 수용규모에 따라 수강인원의 제한이 있으며 교양선택과목 중 동일과목이 복수로 개설될 경우 수강인원을 제한한다. 또 교양필수 교과목, 회화 등의 국어 교과목, 실험실습교과목들은 주·야간의 교차 수강신청이 제한된다.

셋째, 분반 및 폐강은 최초 수강신청 결과에 의해 방학기간중에만 실시하며 수강신청정정에 따른 추가 분·폐강조치는 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강신청후 분·폐강을 할 경우 3주간의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인데 수업의 조기안정화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넷째, 수강정정은 개강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며, 전 교과과목에 대해 수강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수강제한인원 범위내에서만 선착순으로 수강신청 정정이 가능하다.

이와같은 수강신청방법의 변경내용에 대해 교무과 한문무계장은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기존 수강신청·정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의 방식을 도입했지만 원만한 수업을 들여보고 결정할 수 있는 쪽이 줄어들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반발은 예상되지만 잘못된 관행을 언제까지나 반복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이 최초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한 수강신청을 하고 최소의 인원만이 정정을 한다면 매년 뒤떨어지는 학기초 분반과 폐강, 강의실 이동 등의 혼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연구업적’ 발간

연구교류제(처장=임기중·국문학) 연구부는 본교 교수들의 1994, 1995년도 연구업적을 집대성한 '교수연구업적' 제2집을 발간했다.

91, 92, 93년도 교수들의 단행본 및 논문 발표된 것을 정리한 '교수연구업적' 1집에 비해 2집은 94, 95년 2년간의 연구업적이 더욱 늘어 폭수도 증가했으며 대학 사회에서 연구가 중심이 되는 전반적인 여건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출간된 것이다.

한편, 4주전에 발간된 위 2집은 1천2백권 출간, 교수 개인 연구실과 학과 사무실에 배포했으며 학생들의 강의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부는 4달전에 홈페이지를 개설, 책방간 소식뿐만 아니라 연구부 활동소개, 자매대학 소개 등의 홍보도 하고 있다.

보리수

노오란 은행잎이 한일 두잎 떨어져 교정의 잔디밭에 수를 놓고 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저 은행잎은 온통 교정을 노오란 주단으로 깔아버리겠지. 그 주단에 들어서 마주하거나 셋, 넷, 다섯...이 둘러 앉아 은행잎을 만지작거리며 볼 만의 따뜻한 이야기, 셋, 넷, 다섯...이 재미있는 삶의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는 은행잎은 잠으로 흐릿한 느낌을 가질 것이다.

이 땅에 처음 태어나면서 은행나무는 앙상한 가지로 소슬바람을 맞고 피어오른 새싹의 몸을 띄어 생명의 신비를 깨우쳐 주고 가지마다 날개처럼 싱싱하게 펼쳐진 무성한 잎으로 싱그러움 감미를 보내주었으며, 마지막까지 불사르며 젊은이들의 꿈의 대화를 푸근히 밝혀주고자 애를 자라가 되어 자기 노릇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날로 변하고 있다. 은행나무의 잎이 봄이 닮고 여름이 닮고 가을이 닮듯이 학교의 모습도 날마다 새로운 모습을 더해가고 있다.

새롭고 깨끗한 교정에 활기가 넘치는 동국인의 모습을 1년 만에 찾아온 한 친구는 너무나 바뀐 학교의 모습에 경색지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우리 학교는 동국이며 곧 나의 동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국가족이다. 누구 하나 나 아닌 남이 없다. 나는 동국을 사랑하고 아끼며 빛내고자 한다.

동국의 교정, 강의실, 의자, 기물 등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오래오래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 또한 동국인의 의무이다.

은행나무도 봄부터 제 뜻을 다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여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잡아주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고 아름다운 교정의 정취를 더해 주었는데 나는 봄부터 가을을 보내는 초겨울의 길목에 오기까지 무엇으로 동국의 주인된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

동국의 주인된인 교수·직원·학생들이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주인노릇을 잘해낸 것 같다.

이제 동국도 옛날의 영광된 자리를 되찾아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는 대학의 우수계열에 뛰어들었다.

성숙한 동국의 교수는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주는 깨달음의 학문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성실한 동국의 학생은 자기의 혁신을 위한 스승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고 근면한 직원은 교수와 학생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사심 없는 정성을 투철히 발휘한다면 동국의 주인정신이 여실히 실현되어 밝은 동국의 미래에 귀중한 자기 생명을 같이 할 것이다.

이 법산

불교대 신학과 교수

제 38회 사범고시 4명 합격

김기일·정강대·이병선·김철완군

제38회 사범고시에서 김기일(법85졸) 정강대(법85졸) 이병선(법92졸) 김철완(법96졸)군이 2차 합격을 해 본교의 사범고시 가문을 해결했다. 사범고시 합격자는 94년 이후 3년 만에 배출된 것이며 1차합격자 14명 중 4명이 합격해 본대의 위상을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시지도교수 이순용(법학)교수는 "아직 3차면접이 남아있지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고시생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동대 연구부 활동소개, 자매대학 소개 등의 홍보도 하고 있다."

고시에 2차 합격했다.

교수동정

▲이승영(무역학)=오늘(25일)부터 12월2일까지 나이지리아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연방은행 연례강좌 강의에 참석

▲박성식(사상학)=오는 12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이재마의 달 기념행사 및 학술세미나'에 참가해 '이재마의 생애'에 대한 연구 발표.

동대신문사 학술상 문학상 모집광고

◆제34회 학술상 작품모집

- ◇모집분야
 - ①인문과학상: 분상 및 가작(분상 50만원, 가작 25만원)
 - ②사회과학상: 분상 및 가작(분상 50만원, 가작 25만원)
 - ③자연과학상: 분상 및 가작(분상 50만원, 가작 25만원)
- ◇응모요령: 2개 분야 모두 2백자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작과 함께 발표
- ◇제출기간: 1996년 11월11일~12월10일까지
- ◇입상작 발표: 1997년 1월1일자 본지 지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 (02)260-3491-2

◆제1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 ◇모집분야
 - ①시 부문: 3편 내외,
 - ②소설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 ③평론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1996년 11월11일~12월10일까지
- ◇시상
 - ①시부문: 분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 ②소설부문: 분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 ③평론부문: 분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작과 함께 발표
- ◇입상작 발표: 1997년 1월1일자 본지 지상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다가이바! 동대신문사 학술상·문학상에 도전하십시오.

다가이바!

동대신문사

- 독자 시

기 을

정 용 길 (행정대학원 원장)

여기까지 오는데도... 슬한 아픔이 있었다. 그 긴~ 시간을 어찌 말로 다 하랴

연약은 배신으로... 기쁨은 슬픔으로... 사랑은 증오로... 가슴에 뚫을 찼다

그 애중의 세월들... 삭이려고... 여름내 시퍼렇던 나뭇잎들은... 저리 노랗게 아취어지고

그 가슴 저미는 시간들... 지워 버리려고... 빨간색 크레파스를 덧칠하며... 산은 온통 붉게 물들었다

아, 아, 이 계절... 비에 젖은 한잎 낙엽이... 오색 단풍 파도치는... 가이산 자락을 바라본다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편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하이텔(DGU9번방, ID: depress메일)과 여론탐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8

주인의식 되찾고 학생회 변화시키자

학생회의 변화는 이제 우리에게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다. 동국대학교의 97년을 이끌어 나갈 차기 학생회 일꾼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전 동국인 그 누구보다도, 한번쯤은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학생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학생회 일꾼들의 변화가 학생회 변화의 전부인양 이야기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학생회는 학생회의 일꾼들만의 것이 아니라 동아의 학우들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회의 출발은 바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서였고 지금도 학우들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학생회의 일꾼들이나 사업작품이 관성화되고 학우들과 괴리되어가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회 일꾼들의 관성화는 바로 학우들의 무관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사업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말들은 많으나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또한 학생회의 주인이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직접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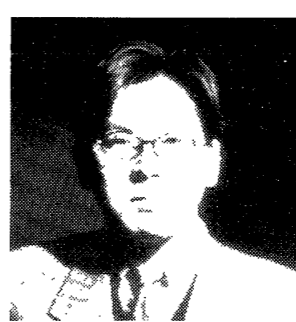
관들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제는 바꿔보자. 학생회의 주인은 바로 학우 자신들임을 각인하고 주인의 도리를 다하자. 학생회 일꾼들 또한 변화해야 한다. 말로만의 변화가 아닌 진정한 실천속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자. 학우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비판하자. 학우들의 올바른 이해와 요구와 참여를 과감하게 수용하자. 우리 학우들은 두관심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다면 그 가장 쓰라리고통을 이제 더이상 학생회 일꾼들에게 지워주지 말자. 우리 일꾼들은 관성화된 모습과 사업작품이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제 과감한 혁신의 모습으로 학우들에게 희망을 주자. 학생회는 학우들 스스로가 그 자주적 이해와 요구들에 의해 조직된 일반이전의 소중함 조직이다. 우리가 놓치지 못한다면 학생회의 운명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희미한 촛불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청년 동학인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학생회를 강화하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학생회 변화의 방향은 그 주체인 일꾼들을 포함한 일반이전 학우들의 주인의식을 되찾는 과정에서 태동해야 한다. 전 성 국 (공과대 컴공과)

일반학우 기만하는 상대후보 비방유세

11월21일, 온방골의 일반학우들은 이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알 것이다. 통일광장에서는 총학선거유세라는 이름하에 유세 아닌 유세를 펼치고 있었다. 어떻게 일반학우를 대표할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자측을 비방하며, 총학생회장을 이렇다할 근거도 없이 비난을 한단 말인가? 유세는 사적인 자리가 아님을 그들도 알 터인데, 그런 몰지각한 발언을 하는지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그날 통일광장에서 유세를 듣고 있는 학우들이라면 최진호측 유세에 반감을 가질 것이다. 선거전에 불미스런 일의 주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얼한 미소를 띠고 온방골의 일반학우들에게 허풍선처럼 "과연 인사할" 수 있을 까? 이는 일반학우를 기만하는, 대 학직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창민 민주주의 실천은 결코 날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온방골이 더이상 퇴보하지 않도록, 하나뿐인 힘으로 일반학우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 생각한다. 김 순 석 (자연대 기교과)

동/문/칼/럼

'이방울씨 이야기'



'방울 밤을 이방울'이라는 내친구가 한명 있다. 이름도 그렇고 생김것도 안전한 쪽 기집애같은 미소녀(?)이 있었다. 꽤나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며 이리 쫓기고 저리 말리느라 잊고 지내고 있던 이 친구를 몇달전에 우연히 사무실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도 있었지만 업무상의 이유로도 요사이 자주 만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던 중 함께 소주를 한 잔 하게 되었다. 내 친구 이방울씨의 군대이야기의 처음 모양은 좋지 않았다. 그는 대학 4학년을 다치고 시험을 봐서 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했다. 그저 군대가 싫어 이리하고 저리하고 막차를 탄적이 그것이었다고..... 그래서 군대 가기 전전날 술에 취되어 하안집앞 골목밖에 노상방뇨하며 맞이 간 손소리로 '충성한다'고... 충성한다... 졸음으로도 군대가 싫어한 날 뺨아픈 대한민국 국방부에 충성한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처음부터 충성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좁고 배고프고 졸린 후보생 시절 육체의 피곤함 보다는 일단은 '군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장교 임관을 포기하고 퇴교를 신청하려고 한 날, 선택으로 부터 한장의 편지를 받았다.

"방울이 보아라. 옛날에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잠깐하고 군대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 내부적인 통제와 수단으로 법률로 대표되는 감옥과 외부적인 방어의 수단으로 의적으로부터 가족과 부족을 지키기위해 군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인디언 부족에게 가장 가장 추앙 받던 존재는 그를 부족의 전사였다. 풀러오는 백인들과 정면으로 싸우고 정열이 전사한 그들의 전사 말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군인이다. 군인이야 어쩔때도 이야기해도. 나가 군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리고 연병장에 나부끼는 것발라 내뱉는 담배연기 따라 시간은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가장 젊은 날을 버리지 말고, 시간을 아껴 인생에 가장 빛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아라. 사랑한다 방울아" 친구 이방울씨는 꽤나 감동받은 눈치였고 그 다음부터는 봉사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빛나는 젊은이를 바쳐 국가에 희생하며 봉사함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어떤 후배가 특별히 '형은 용병 어찌구...' 라는 말도 작은 미소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을 가르쳐 빛나던 젊은 날의 희생과 봉사심과 충성심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직 국방부 장관 이보씨가 어찌구 전직 누가 저찌구 하면 우리 젊은이 연병장에 나부끼는 것발라 내뱉는 담배연기 따라 날아 가버린것 같아." 무엇보다도 존경스럽지 못한 지도자와 같이 살고 있음이 가슴 아프다고... 그래서 그날 우리의 술자리는 가슴 답답하게 끝났다. 정 치 근 (영교 86층-국민은행 계층)



난방문제

- ▶백골난방이 아닌 중구난방이다. ▶온방골은 얼음골 같아. ▶올 겨울도 난 동상을 빗으로 삼을 것 같다. ▶충동창회비로 전강실의 난방장치를 합시다! ▶에이, 이등차동(?)이다. ▶지금 난방이 간다. ▶정각원 수업 난방이 안되어서 종강했다. 부처님도 추울까? ▶여보! 아바님 댁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겠어요. ▶제일 추운 아침엔 안틀고 또 다음 추운 저녁에도 안틀고. ▶미술과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학술관의 난방시간을 늘려야 한다. ▶난방시설을 없애라! 왜? 학우들이 잠만 자니까... ▶손시러워 시험도 못보겠다. ▶96년 11월20일 수요일 스텝기동 4개가 차례로 폭발(?) 했잖아! 그 와중 수업은 더 웬 말이야?!"

- ▶하루에 열받았다 열시켰다 여러번. 그래도 난방이 들어와 좋긴 좋다. ▶아간강의 난방시간을 적절히 조절해 주세요. 밑둥 떨어다가 수업 끝날때쯤 매우 더워집니다. ▶아이 추워. 없으나 있으나. ▶날씨가 쌀쌀할때면 스텝이 안나오고 따뜻할때 나오고... ▶말 그대로 소나기식 난방일. (가동시 너무 덥고, 가동을 중지한 경우 너무 춥다.) ▶나는 왜 난방이 되면 잘까! 혹시 수면제가 들어간 스텝이 나오는 건 아닐까... ▶수업을 들을 정신상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건 아닐까? ▶따뜻한 물도 나오면 더 더욱 좋겠지? ▶스텝 들어오면 더 춥다. 왜냐구? 온가쿠 날려 온 다 열어야 하잖아. 차라리 스텝 꺼버려라. 너무 춥다. ▶만강관 화장실의 스텝효과-하수구에서 분출하는 이싱기체의 정체는?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스텝 gas. 강의실의 온천화? ▶스텝 기동위에 가방 얹어 놔다가 가방에 온가쿠가 물을까 걱정이야. 그래서 가방 하나 날릴까봐.

- 독자 사진 - 이이는 이짖디



리 정 현 (사과대 사회학과)

목역골

- ☑ 수고하셨습니다 ■ 제11회 백상 Concert를 무사히 그리고 멋있게 끝마치게 된 것... 모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 전하고 싶습니다. -20th Action# 여먼이
- ☑ 축하합니다 ■ 11월 24일 우리의 200일을 축하해 주세요. - 추무로 강이지 ■ 사장님! 절신을 축하드립니다. -경상학부(04) 정선영 ■ 준호형 이부 무역학과 학생회장되다. "축하" - TANG ■ 준옥이형 취임 축하해요. -후배(Y-S-H) ■ 경륜선배 생일 추가 추가 -여명 일동 ■ 영문과 96학번 현정이, 영희, 선희의 생일을 엄청나게 축하합니다. -창숙-상현-미선이가 ■ 통일선봉대 동국대대장 박씨 집안의 모 선영군이 돌아왔습니다. '96통선대 일꾼들이 매우 매우 축하드립니다. ■ 상신아, 생일 진짜 축하해! -경미
- ☑ 그리고... ■ 김승현! 불교학부 학생회 회장 출마했나? 열심히 해라. ■ 크리스마스 한달남다. -산타클로스 일동 ■ P-S)내 생일도 -예수 ■ 규희야! 군대 잘 갔다와라(말 꼭박어!) -사회 95 ■ Mr.주석, British 잘 갔다와, 꼭 돌아와. -오정 ■ 총여학생회장-부회장 선거도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진이가! 혼자자기를 무지무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 ☑ 알립니다 ■ 29일 금요일에 제주항우회 졸업생 관송회가 이산한 하영 나눔써. -wind kim ■ 지난 11월18일 1212호 동대신문의 동약광장에 실렸던 한 학우의 의견중 '방송'이란 표현에서 본 방송국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본 DUBS의 입장을 밝힙니다. 본 방송의 특성상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청취를 하지 않으면,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수도 있기에 학우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DUBS

동/약/광/장

다학관 식당

25(월)	비후카스(1500)	돈육김치찌개(1200)
26(화)	오징어무침(1300)	순두부찌개(1000)
27(수)	하이라이스(1000)	사골곰국(1300)
28(목)	최고부엌(1200)	강장탕(1500)
29(금)	여포장제(1200)	최고기국밥(1200)
30(토)	회덮밥(1300)	

동국관 학생식당

25(월)	양상부엌(1200)	연두부찌개(1200)
26(화)	담동탕(1200)	아메 통닭수(1300)
27(수)	카레라이스(1000)	감미 우거지(1500)
28(목)	보고구밥(1500)	바사리덮밥(1300)
29(금)	곰바구이(1300)	돈육찌개(1200)

교직원 식당

25(월)	성장찌개(2700)	최고기장국(3000)
26(화)	대구매운탕(2700)	황남동발판(2500)
27(수)	멸치김치찌개(2700)	감상부엌(3000)
28(목)	사골곰국(3000)	오므라이스(2700)
29(금)	순만두백반(2700)	담동아찌(3000)

온방골

- ☑ 축하합니다 ■ 태훈=뽕대 오빠야 생일 추가! 추가! 추가. 겨울인데 가을이라고 우기지 말고 너무 외로워도 울지 마세요. 정말 생일 축하합니다. -권경영 ■ 미영아! 생일 축하해, 생일 잘 보내고 고마워요. -윤주가
- ☑ 축하합니다 ■ 호아형, 세무회계 겸정시험(1급) pass하신것.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동침후배 ■ 11월26일 봉춘아 생일 축하한다. Happy birthday to Bong chun. -포항 대동고 1471 일동 ■ 법재 선배님! R-T 합격하신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영이 언니 좋겠다. -18期 BLACK CAP ■ 전산과 아르내의 9회 콘서트를 자축하며... -87가 ■ 김소희(전산95) 생일 축하한다. -우.광 ■ 법학과 96최종필 11월28일 생일 축하해. -양희 ■ 천백일동안 사랑을 지켜온 석이와 숙이의 25일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길 바라요... -불교학과 93학번 친구들이 ■ 고길동친구는 행정4 최희동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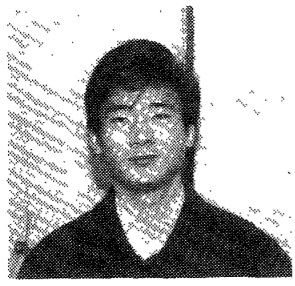
학교식당 무질서 서로위한 배려 절실

자연대 건물을 제외한 각 단대 건물에는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방문의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식당 특유의 음식냄새와 많은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이다. 한쪽에서는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음식을 먹으며 잡담을 하라 담배를 피우라. 불륨 높은 음악소리에 떠날야 식당속의 소란스러움은 더해 간다. 그런

무질서한 속에서 고된 배를 채우는 일이 너무나 불청결하고 불쾌한 뿐만 아니라 음식을 다 먹은 후에 그릇만 치울 뿐 자신의 자리를 청결히 하지 않고 자리를 쓰는 학우들이 많다. 적어도 자신이 사용한 휴지나 탁자 위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까지 치울 줄 아는 예의 정도는 기본이 아닐까. 타인의 즐거움은 식사시간과 짧지만 편안한 휴식공간의 활용을 위해 목소리 낮춘 대화와 조심스런 발걸음, 그리고 각인의 유혹을 잠시라도 잊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선 영 (자연대 기교과)

- ☑ 축하합니다 ■ 고적연구회 여러분, 사진전시회 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77 재현 ■ 임관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다. -35기 후보생
- ☑ 열심히합시다 ■ 건훈아, 쌀쌀한 오후에 고생이 많구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라. -국.관 학우 ■ R.O.T.C 동기들이! 임관고사 준비하느라 이 추운날에도 고생 많구나. 열심히 해서 모두 무사히 임관하길 바라요... -5기
- ☑ 알립니다 ■ 동국대 통일운동체 '통일선선'이 드디어 발간자 대회를 28일 개최합니다. 통일에 관심있는 모두 참여를... -썰렁이 ■ 11월28일 한의대 서울상경 공연합니다. 풍기여러분 후배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금범
- ☑ 그리고... ■ 여러분 동국의 희망 상수가 12월3일 의정부에 갑니다. 내 입는 동안 학교를 잘 지켜주세요. -국제경제2 박상수 ■ 태근오빠 봉기아. 군대가서 잘 살아야해. -최진&정희
- ☑ 수고하셨습니다 ■ 후호회 식구들 창간기념식 및 출.송준비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합시다. -15기 ■ 관광경영(야) 야구부 종파티 하느라 1가 아그들이 수고했고, 군대 잘~가리요 -해정
- ☑ 수고하셨습니다 ■ 23일(土)너와의 1000일째 만남을 축하하며 유진아 건강해라. 사랑한다. -너의 오빠가 ■ 해동이 오빠! 생일 추가추가 해용. 소연이랑 고만 싸우고 따끈따끈한 겨울이 되길... -외로운 여인:금 ■ 생일을 축하합니다. 경영3 이상학 티코만세! -태&Jun 그리고 일동 ■ 효교야 생일 축하한다. 열심히 곳곳하게 살아라. 효교 만세! -94 재후니 ■ 태근·희경·정근 입대 축하. 동아리 제작. -후후회 ■ 종심아(심술이) 생일 축하한다. -巨木 식구들

국책사업 악용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다



곽현
경실련 정책실 연구위원

시사논단

고위층 비리를 통해 본 한국경제

대적인 관행들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동안 몇차례의 공적자 사정사업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든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위층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경제구조 비리가 짙을 수 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된 이권을 둘러싼 음성적인 거래관행이 여전히 우리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내려져 있다. 공정한 틀 속에서의 경쟁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각종 이권과 특혜 등에 익숙한 한국경제의 전근대적인 구조는 비리와 부정부패라는 토양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위층의 비리가 존재할 수 있는 뿌리를 근본적으로 없애지 않고서는, 일시적인 수사나 처벌의지만으로는 이미 부정부패, 비리의 근원은 한계에 불확해 있음을 현실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근원적으로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고위층의 비리가 이미 대형 국가의 중대한 국책사업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사업들의 일과 결정과정, 경제실사를 규정하

는 각종 불필요한 인허가제도, 규제 등에 고위층이 영향을 미치고 이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대형국책사업의 일과 결정과정은 일반국민에게 공개화되어 있지않고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실로 부정부패와 비리에 거의 무방비로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하며 때문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근원적으로 숨 쉴 수 없는 투명행으로 나가는 것이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또한 부정부패에 대한 적절한 제재 없이는 일사적인 사정비행은 오히려 더욱더 비리를 관행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 첫째는 경제 모든 과정에서의 공정한 틀과 경쟁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행정절차와 내용이 투명해져야 한다. 공정한 틀 대신 특혜와 정략이 만연할 때 비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혜와 정략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경제거래과정이 투명해져야 한다. 국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관되고 결정되는 과정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고위층의 이권개입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투명한 행정절차를 확보할 수 있는 행정관행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투명화를 위한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이 올바른 제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고위층의 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속력과 강제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위정자와 처벌의지는 부정부패, 비리 근절의 시작은 될 수 있을 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부정부패 처벌의지는 의처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제화시킬 어떠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은 두눈을 감고서 칼날없는 칼을 허공에 휘둘러대는 꼴밖에 안된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정부패 방지법, 공적자 윤리법 등의 법적인 장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비리의 먹이사슬에서 벗어 나지 못할 때 끊임없는 고위층의 비리를 낚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결과는 국민들의 삶을 높이는 데 결핍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위층의 비리가 미치는 영향은 해당사회의 허부까지 비리를 일상화시키기 때문이다. 사회의 모범이 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비리의 장본인들이 되어갈 때 우리사회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과 원칙을 뿌리내릴 수 없다. 이 때문에 고위층의 비리는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로 다루어져야 한다.

국가경쟁력 10% 올리기 경쟁보다는 한국경제의 '맑음지수'를 10% 올리는 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첩경이다.

사설

1백년을 위한 사업

본교의 '비전 동국 1백년' 발전 사업이 순탄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2천6년, 개교 1백주년이라는 상징성을 앞두고 그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동국 후원의 밤이 성황리에 개최돼 일단 의지는 모아졌으며, 이제 단결된 의지를 확인한 단계를 지난 시점에서 실행방안과 연계선상에서 진행될 세부계획을 검토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본교는 2천6년까지 총 3천억원의 발전기금을 마련할 계획과 더불어 크게 세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가 국내 3대 명문 사학을 목표로 연구중심대학 지향 교육제도 개선과 경영, 행정의 합리적 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캠퍼스별 특성화 실현계획으로 서울캠퍼스는 인문 사회과학 중심, 경주캠퍼스는 불교문화와 전통 지역 캠퍼스로, 아산신설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제3캠퍼스는 과학기술 캠퍼스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한·양방 종합병원 건립도 큰 사업중 하나이다. 셋째, 재단 전입금 확충, 발전기금 조성, 산학협력체계를 통해 등록금 의존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계획이다. 이상 세가지 계획은 발전기금이 쓰일 공간 사업이자 곧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사업들이 나아갈 경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동국발전기금 조성은 20일 현재 약 2백60억원의 모금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에 이은 경주 '후원의 밤' 행사는 위대한 발전의 신호를 알리는 계기 이외에 기대 이상의 모금성과를 거두었던 바, 이 행사를 계기로 본교의 발전기금 조성의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동문과 불교계가 재원 마련의 중심적 창구이다. 각각 구성비가 약 16%, 15%에 이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국가족이란 학원의 근본 기원, 재단의 단거점, 투자방식의 근보다 낫다는 점이 설득력 있다. 경주 '후원의 밤' 행사에서만 거두된 뒤인 기금이 약 60억원에 달한다. 다만 국보조금, 일반인, 기업 재단납부 등 다른 창구가 더 개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다음으로 재원을 합리적인 투자로 이룰 사업계획의 고찰이 뒤따른다. 가장 큰 재원 투자 사업으로 제3캠퍼스와 불교 종합병원 건립을 들 수 있다. 30만평 규모의 거대한 대학타운 건설과 1천 병상의 매머드급 종합병원의 건립에는 상당한 계획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그에 따라 충분한 교육 환경시설을 위해 단거점 개축공사가 필요한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 자치 뒷편으로 밀려 나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나마 다양한 것은 상황을 이룬 후원의 밤 개최의 영향으로 경주캠퍼스 경우 이제까지 일시적인 기본 사업본부가 제대로 행정을 갖추게 되고 그에따른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동국의 성세가 결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에 뒤야할 것은 학교 재주체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이를 위해 확실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계속적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며 그 뚜렷한 목표에 따른 공감대는 자연스레 생겨날 것이다.

동국만평

고대성

뿌리깊은 나무



최근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한다는 심리를 교묘하게 상술로 이용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어 일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늘고 있다.

'배우면서 일하길 분', '아르바이트 하면서 영어 공부하길 분', '월 70만원 이상 가능' '시간제 가능'이라는 문구들은 학생들의 구미에 딱 맞아 떨어지는 조건으로 커를 솔깃하게 한다.

얼마전까지 학내에는 위의 내용이 담긴 스티커가 곳곳에 붙여져 있었다.

공공계시판은 물론 건물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이나 화장실처럼 시선을 돌리기 어려운 곳이라면 어김없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소 담당 아주머니들이 계속해서 제거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흔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상태이다.

이런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가지각색이다. 첫째, 아르바이트와 수당을 동시에 해결한다고 광고를 하나 수당료를 우선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아르바이트가 된다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수당료를 내고나면 일정 정도 아르바이트 학생이 확보

◇허위·과대 아르바이트 광고 진단

자극적 조건 내건 학생유도 상술

피해자 권리 보상받을 적극적 대응 필요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라고 한다. 이후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이 확보되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강의만 듣고 아르바이트는 못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동시 해결이라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둘째, 전화로 문의를 받은 후 수당료를 무통장 입금하면 강의를 개설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학교 강의실을 이용해 강좌를 개설할 경우에 해당되며 잡다한 강의 준비를 하는 아르바이트가 제공판이다.

여기서 수당료를 지불했는데도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셋째, 아르바이트를 하긴 하되 어학용 테이프를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도 한다. 이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테이프를 구입하거나 '일하면서 공부'할 기회를 포기해야 한다.

넷째, 강좌 개설 후 추후축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강의를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가 아직 공식집계된 바는 없다. 그러나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한 두 번 들 어보지 않은 경우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대개 운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넘겨버리고 만다. 관련문제에 대한 전문 해결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학생들이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피해를 봤다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만 생각해 버리고 만다. 이 때문에 피해사실이 축소되는 것이다.

얼마전 강남 모 학원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던 정보대학원 한 학생은 "아르바이트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싼 수강료 선불지불을 요구해서 그만두었다"고 했다. "분명 속은 기본이었지만 재수없는 일 정도로 넘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대개 학생들은 신고를 한다해도 보상받기 힘들거나 판단하고 미리 단념해 버리고 만다. 이로인해 이런 일들이 뿌리뽑히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퍼져 나갈 뿐이다.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책도 마련이 안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당해봐야 알게 되는 식이다.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다. 이런 일이 한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몇십명의 손해가 범위를 확대시켜보면 몇 백, 몇 천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피해액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

앞으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법적으로 맞서려 해도 교묘하게 걸러지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조심하지 않으면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된다.

이에 소비자 보호단체에 자문을 구하는 방법과 교내에 광고가 나붙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반드시 공식기관에서 개설된 강의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요구할 경우 개개별로 연락을 취하지 않고 단체로 연락하는 것이 좋으며, 강의가 끝난 뒤에 지불하거나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도록 해야 한다.

요새 학생들이 필수 조건은 너무나 많다. 토익, 토익, 어학연수, 배낭 여행, 컴퓨터, 어지간한 기능사 자격증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학생들은 남이 하나까 나도 해야한다는 당위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신중을 고려하여 한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국제화추진전략시리즈 2 - '해의MBA과정'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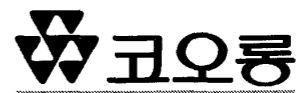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의 도서관에서

One & Only

코오롱 그룹 이진웅과장 (32세)의 노스캐롤라이나대학 MBA연수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작년 4월, 후속하기로 소문난 코오롱 사내 MBA과정에 입문했을 때 이미 고생은 각오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공부와 업무의 병행이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다. 교육참가자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가 약해져가는 나 자신과의 싸움...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마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은 순간이었다. 낯설기만 한 이곳에서 영어로 수업을 듣고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는 일은 아직도 어렵기만 하다. 그러나 주경야독하는 내 입장을 많이 도와준 회사동료와 사랑하는 가족들, 또 국제화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많이 배우고 돌아오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사를 생각해사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앞으로 2년- 각고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려다. 뜨거운 열정을 안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려는 나의 의지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서었다.

코오롱은 ONE & ONLY 정신을 실현하는 사내MBA제도와 해외 MBA연수, 지역 전문가 해외파견, 신입사원 해외연수 등 다양한 세계화 프로그램으로 "국제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제 14대 총학생회 선거를 맞아 본사는 각 후보자를 본사 회의실에서 개별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총학 후보는 편상규·이범현(철3)과 최진호·정해영(국경3)로 출마했으며 출마동기, 공약사항 전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후보에게 감사드리며 개표순간까지 공정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경주캠 총학선거 인터뷰

◇총학 입후보자 질문요지

1. 제14대 총학생회 입후보 동기는 무엇인가.
2. 제13대 총학 사업을 평가해보고 제14대 총학이 중점적으로 실행해야 할 사업과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가.
3. 올해 가장 문제시 됐던 학부제 투쟁의 평가와 96-97년도의 학부학생들 및 학생기구들을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할 사업은 무엇인가.
4. 현재 선거관련 문제점에 대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의견은 무엇인가.

◇편상규(정보3)·이범현(철3)조

‘자유로운 불만 힘 있는 투쟁’



1 기존 학생회는 학우들과의 거리감이 너무 컸으며, 이를 없애기 위해 출마했다. 현재 학원은 학부제등으로 인해 경정 상태를 야기한 채 점점 위압 양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는 대학이 사상을 가지고 사회에 저항할 수 있는 예비인공들의 자리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뜻하며 기존 학생회도 이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학을 진보적이고 생동감 있는 현장으로 만들 것이며, 학생들의 사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게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입후보하게 되었다.

2 13대 총학생회는 출범부터 잘못되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성격의 집부구성은 사업의 전반적인 무성의와 무책임까지 야기시켰다. 그러나 남아있는 13대 총학 집행부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사 전구 투쟁이나 총선 투쟁, 대동제, 농활을 현장 활동으로 바꾸는 등의 지역 환경문제를 지역민과 연대하고 학우들을 이끌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총학의 본연의 13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4대 총학생회는 학자부 사업을 활성화 하겠다. 우선 학자부 산하에 교과위, 학부제내대투쟁위원회, 대학개혁위원회 설립 하겠다. 먼저 교과위는 제 2대학 등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강좌 개설권을 주요 사항으로 다루었고, 대학개혁위원회에선 학교당국의 인사, 행정, 재정 부분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을 실행할 마련. 과의 특성을 고려 지역과 연계, 도서관의 기본적 시설 설치 등을 구축하는데 노력 하겠으며, 복지부분에선 버스 이용 편의 고려, 택시 승강장 마련 등의 사소한 문제점부터 해결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 동국의 새로운 질서를 개편하겠다.

(신우용 기자)

3 13대의 학부제 투쟁은 실패한 투쟁으로 평가한다. 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았기에 학생 기구나 학생들이 이끌어 내지 못했다.

14대 총학은 먼저 학부제를 가장 큰 사안으로 생각하고 학부학생회의 건설과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학부 학생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겠다.

또한 반대표 등을 공식적 절차로 선출하고 책임성을 부여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학부제 투쟁의 주체가 되도록 조직화해 내겠다. 그리고 학부 학생이나 학생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선 먼저 총학내부의 단합이 있어야 하며 대화와 고민, 투쟁 속에서 각 학생 기구를 이끌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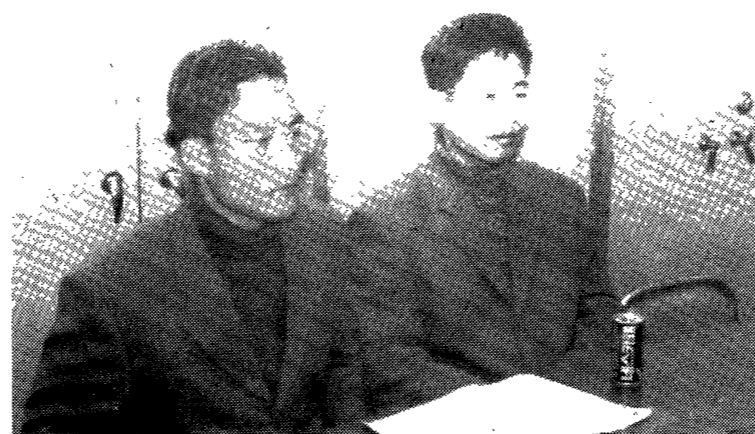
현재 학교 당국도 인문 학부를 3개 학부로 편제할 것으로 어느 정도 학부제의 모순을 인정하고 있으며 96학년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학교 당국과의 투쟁의 기본 방침은 '전면 반대'이다

4 선거와 관련된 이번 사건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처음에 입장을 사건의 해결을 위한 선거를 할 수 없으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두 후보자 측이 공동 사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는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중선위의 몇몇 위원들의 발의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중선위 위원으로 책임을 지면서 학우들에게 이번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며, 이 부분은 상대편을 비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후보자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기에 신중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정당해야 할 학원의 모습에서 기성정치인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최진호(전산3)·정해영(국경3)조

‘학우공감·학우주권’



1 지금까지의 총학생회는 학우들과의 괴리감이 많았다. 즉 소수운동권이 총학생회를 담당해 학생들이 권리를 무시한채 투쟁을 위한 학생회였다.

과거 학생회 공약사항 중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 않았고 학우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못했다.

이번을 계기로 일반학우가 다가갈 수 있고, 학우들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입후보했다.

2 13대 총학생회는 한마디로 거저되고 위선을 가졌다. 등부등의 기타사업에 대해 학생들의 의지를 대안했지만 총학생회가 힘없어 의결되어 공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했다. 학생수첩 비리도 이와 밀접상통한다. 순수하고 도덕적 양심을 가져야 할 운동권 학생회가 오히려 학생회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등 그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3대 총학생 회장은 학내의 1만 동국인을 외면한 채 교문을 박차고 노동해방 개혁이라고 말하면서 나와 있었던 곳은 학내가 아니라 바로 파업장소에서였다.

14대 총학은 수첩비리 같은 수치스런 일을 없애고자 현 학생회 계열산사업내역을 공개하고 학우들과 호흡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1만 동국이 하나되어 말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겠다. 97년 한해사업으로 교육과 복지, 학부제에 중점을 두고 말할 것이다.

교육부분은 교수평가제 실시와 강의 계획서 세분화, 강의평가제로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겠다.

질 낮은 수업으로 취업에 장애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학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가장 중요한 복지부분은 총학내의 무료

팩스를 설치해 학우들이 언제나 사용토록 하며, 도서관을 활성화 하는 등 도서관내 학술정보 자료도 구비할 것이다. 도서관은 학내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열악하다. 도서관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하기란 힘이 든다. 이런점을 서울캠과 교류하도록 하겠다.

또한 대책없는 학부제를 해결할 것이며, 도서관을 활성화 하는 등 도서관내 학술정보 자료도 구비할 것이다. 도서관은 학내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열악하다. 도서관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하기란 힘이 든다. 이런점을 서울캠과 교류하도록 하겠다.

이런 점을 서울캠과 교류하도록 하겠다.

3 현재 정부의 지원에 재단교육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서 학부제는 당연 체제되어야 한다.

인문대와 자연대 상경대는 학부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인문과학부 경우 인기학과와는 다르게 인기없는 학과는 자연 도태되고, 학문의 본질도 찾을 수 없게 된다. 학부학생회립과 학생회건립을 공존화시키는데 그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학교측은 나름대로 학부제 개선책을 내놓지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내년 97학년 신입생이 입학하더라도 96학년 학부학생들과 크게 달라진점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학부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총학내 중앙교과위를 활성화시켜 1, 2학년의 학부학생들과 고민을 풀어 갈 것이다.

4 당시 등록서류 본실에 관해서 유감을 표하며, 재등록시 학기마다료 부후보자가 바뀔때 학우들에게 사과하는 바이다.

그리고 두 후보자가 재등록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중선위에 고민을 풀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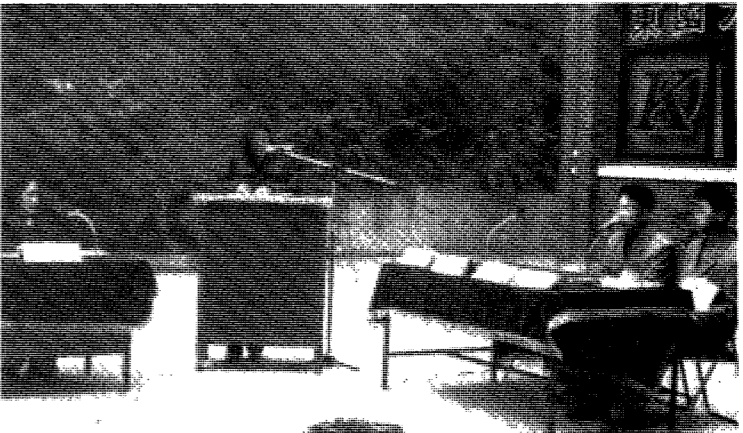
탈퇴한 중선위원은 이번 총학선거와 관련해 일부 운동권이 조작한 것 같다.

진정으로 은방울 1만 학우들을 위한 선거라면 깨끗하고 공명정대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조안선 기자)

◇총학생회 후보자 공청회

**최진호·정해영 조 불참속에 진행
학우들의 질의 회피 지적돼**



제7대 언론협의회(의장은 박도선·경제3 이하 연합)는 지난 20일 우체국 앞에서 '총학생회 후보자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공청회를 진행하는 동안 학생회관 식당과 휴게실에 생중계했다.

이번 공청회를 위해 편상규(정보3), 이범현(철3)조와 최진호(전산3), 정해영(국경3)조 양측 모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문을 발송했으나 최진호, 정해영 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간접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고, 언론협의회는 직접 불참의사를 받지 못했기에 참석을 고려한 공청회를 준비했다.

이로인해 최진호·정해영조의 정확한 불참의사를 공청회가 끝난 후 요청한 결과 공청회 불참사유에 대해 5차유세를 통해 정책 및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고 했으며, 지난 총학생회 공청회때 일부 후보자들에게 답변시간 편중, 사전 질의 내용유출 등이 있어 불참을 결정했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이중 두번째 사안에 대해 언론측은 증거를 확보한채 재확인한 결과 최진호·정해영조는 사전질문의 내용유출부분은 잘못 전달되었던 부분이라고 번복발언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편상규·이범현조의 공청회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신고자 하며, 참석하지 못한 최진호·정해영조는 어떠한 이유였던 간에 연합의 실질적인 질의와 일반학생들의 질의를 회피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약 40분에 걸쳐 이루어진 공청회는 준비된 동통질들의와 개별질의가 각각 한 번씩 모두 두번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질의의 경우 정책질에 제시한 공약중심으로 질의하였다.

1. 97학년도 개편된 학부제 체제에 대한 입장과 학부제에 관련해 총학이 대처해야 할 방안은?

- 학교측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추진된 학부제의 폐단은 여러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대 산하에 학부학생회를 건설하여 학부제의 학생참여를 확대하고자하며, 교육행정을 학부제의 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현주 기자)

21세기 소재산업의 리더, LG금속

正道경영 · 초우량 LG

“내 작은 땀방울이 이 사회의 풍요를 떠받친다면 그게 기쁨이겠지요”

순도 99.99%를 사랑하는 사람들

“삶의 보람을 아는 우리들 가슴속에는 21세기가 살아 숨쉬습니다”

순도 99.99%를 향해 100%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LG금속의 얼굴입니다.

미래 산업사회의 핵이 될 소재산업 - 생활·산업용 금, 은, 동에서 첨단 소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LG금속의 사람들은 비록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풍요를 떠받치고 있다는 긍지로 삶을 가꾸고 있습니다. 99.99%를 위해 100%의 열정과 긍지로 살아가는 사람들, LG금속엔의 가슴에는 21세기가 살아 숨쉬니다.

LG금속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 비밀재련** 연간 22만5천톤의 99.99% 電氣銅을 비롯하여 금, 은 등 10여종의 비철 금속류의 생산, 무수합금, 무수이합금, 도금약품 및 전자공업용 고순도 황산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 금속가공** 고품질의 동과이르,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및 무산소용접, 용·線과 같은 순동 가공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 특수소재** 희토류합금용, 고순도금속, 희토류자석, 우라늄도료 등의 첨단소재생산과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G금속

인재개발팀 한 동 훈

대학문화 찾기 시리즈

80년대까지 대학문화를 지탱해온 화두는 '저항'과 '진보'였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문화욕구를 지닌 '신세대'들이 등장하자 대학문화는 '진보' '공동체'보다 '다양성'의 논리가 더 강조되고 시작했다. 그러나 어디까지 대학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학문화에 대한 올바른 현실인식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이 기획을 마련한다. (편집자)

차례

1. 대학문화는 붕괴되었다.
2. 동대문화의 현실
3. 동아리의 연대와 소통을 향한 물음표
4. 서태지의 저항과 축제를 통한 새길 찾기

달 하나 천광이

가을은 따뜻하다



이제 1996년도 얼마 남지 않은 11월의 네번째 토요일 아침, 진흥관 연구실에서 창을 여니, 노랗게 변한 잔디와 산 밑 마을에서 피어나는 연기가 보인다. 늘 가슴으로 와 안기는 평화, 마음으로 교정에서 피어나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시골벽처럼 짙은 향기를 느낀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갈등과 방황을 거듭하는, 그러면서도 내일을 열심히 준비하는 동국의 청년들에게 이 아침의 단상을 전한다.

가을은 늘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웃음과 비애가 교차되는 시기이다. 낙엽이 지고 싸늘한 한기가 느껴지기에 오히려 한겨울보다도 마음을 차갑게 만들지만, 자연의 법칙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에 따뜻하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으로 그리고 훌륭한 성과로 겨울을 맞이하지만, 준비가 부족하여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실망과 후회로 가슴 한가운데 차갑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가을은 항상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8년 전 바로 이 무렵, 유학 첫 학기를 마무리할 때, 남들은 거의 합격하는 영어시험에서 낙방하였다. 여름이 낄새는 노랗게 물든 가로수 길을 혼자 걸으면서, 무능한 자신에 대한 허탈감과 짜증, 실망과 좌절로 싸늘한 눈물이 가슴에 흐르며 '자살'이라는 단어가 혀끝에 맴돌았다. 그 해 가을은 너무 추웠다.

그리고 일년 후 가을, 무사히 박사과정자격을 합격하고 수업에 자신감을 가진 무렵, 그 해 가을은 따뜻하였다. 한 밤의 별을 헤면서 도서관을 나오면, 수문은 아래 쓰레기통 위에서 먹이를 구하던 오소리(?)가 나를 '밀짚모자' 바라보고 있다. "자식, 밀 봐!" 속으로 의치면 서도, 그 해 가을은 즐거웠고 반소매만 입고도 따뜻했다.

그리고 삼년 후 가을, 학위논문심사를 마치면서 모두 나를 "Doctor Kim"이라 부르며 악수를 청하였다. 그 날 하나 틀 흘날리는 눈발이 보이며 나는 미친 듯이 웃었다. 그리고 인생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 장을 힘껏 열었다. 밀려드는 성취감, 그때 그 느낌을 올 가을도 포근하게 만든다.

젊은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젊은이 저만치 다가오는 가을을 호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젊음은 아무런 제약없이 열심히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에, 한 순간 순간이 더욱 소중한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도전을 감내할 수 있는 정열이 있다. 이 젊음을 구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동국인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가능한 자신'(possible self)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다. 망설이거나 뒤돌아 볼 이유가 없다.

올 가을은 따뜻했는가? 삶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대로 이루어진다.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을 마치 소설 속의 등장인물처럼 남의 인생인양 보지 말자.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문은 없다. 열리지 않으면 부수고라도 열어갈 수 있어야 한다. 문을 두드리고 되돌아가는 젊은이는 늘 쓸쓸스런 가을을 맞이할 것이다. 오늘도 연구실의 난로는 싸늘하다. 그러나 가을은 따뜻하다. 따뜻한 가을을 즐기는 교정의 젊음이, 그 의지와 환호성이 들려온다.

김 상 목 법정대 행정학과 교수

“이젠 대학인의 저항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90년대 탈정치성 소비 매커니즘이 만들어낸 지배문화

대중성을 달고 일어난 ‘서태지’와 ‘제2대학’의 저항의 가능성

대학의 역할

‘대학은 취업의 길라잡이’, ‘인력 양성소’ 이것이 90년대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고 바라는 대학의 역할이다.

시대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인생에 있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타인으로부터 노력을 인정받는 것대로, 타인보다 한층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만들어 버렸다. 이처럼 달라진 시대환경은 대학 환경과 대학문화의 변화를 가져왔고 적자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누르는 방법적 모색에 열중하여 그 방법론을 체계화시키는 곳으로 대학을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그러나 70·80년대는 진보와 혁신이 공존공생하면서 구조적 모순이 사회전반을 지배하였다. 이 모순을 향해 민중가요와 마당극 등으로 사회비판적 목소리를 표출할 만큼 대학문화는 저항적 성향이 강하였고 대학문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들도 확실한 의지와 정체성을 인식하였다.

이런 제도문화에 대한 저항은 전학우의 참여가 전제되는 ‘대동제’에서 하나의 거대한 과도처럼 일어나 학생운동과 연계되었다. 대학문화의 꽃인 대동제가 말로 대학문화를 가늠하는 것대의 역할을 하였다.

반면, 획일적인 교육과 80년대 후반부터 급부상하기 시작한 대중문화에 아무런 여과과정도 거치지 않은 지금의 신세대들은 80년대와 90



◇92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서태지와 아이들. 이들은 대중음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년대의 시대적 변화를 세대차이로만 정의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80년대와 연계되지 못한 저항정신이란 부분에서 더 이상 공간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대중매체의 발전은 지배문화를 문화영역에 상품화하여 신세대 대동로 하여금 소비, 함유능력만을 허용한 결과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신세대의 ‘시선’에는 수동적 수용의 연 아무 것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90년대의 대동제를 탈정치성, 소비의 매커니즘, 학우의 냉소적인 시선 등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하다.

일탈과 저항

투쟁가를 부르기 보다는 예절화한 사랑노래를 즐겨 부르고, 상업적 성향이 짙은 개별적인 과행사가 대중적 일탈도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의 계급담론에 이어 90년대의 문화담론은 90년대에 심심찮은 화두거리로 제공하였고, 문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 중에서 80년대의 저항문화가 변형화된 인더문화는 대중문화 속에서 일탈과 저항을 추구하여 80년대의 저항의식이 부활되기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희망적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중에서 등장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파괴적인 음악을 단지 타이밍이 적절한 자본주의의 상품으로 치부해 버리는 부류도 있지만 문화의 담론화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였다는 시선이 대부분이다. 또한, ‘서태지와 아이들’이 저항과 사회에 대한 비판만을 화두로 던져놓았을 뿐, 대안미련이 없지않았더라면 우리 사회에 커다란 혁신적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상업성에 종속되어 주체성과 저항에 대한 부채를 고민하던 대학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적 대항문화

자본주의의 소비, 향락적 문화는

거부하지만 대중문화를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중성을 이용하여 공동체적 대항문화의 일탈을 시도한 행사가 여러 대학에서 치러졌다.

성대의 ‘록페스티벌’은 사회비판과 저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록을 통해 일탈과 저항을 대중들에게 이 해시키려는 의도에서 실험적으로 시도되었고, 본교의 뼈대 대학은 예전부터 급기시되어 온 성을 담은 화하여 다각적 시각에서 성을 바라보는 ‘성정치’와 ‘성문화제’를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서울대의 ‘반대동제’ 연세대의 ‘혼재, 대학, 그리고 공존’등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행사가 치러졌다.

그러나 대학문화의 일탈과 저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아무리 신세대라고 하더라도 아직 대학문화의 주체적 인식부족과 소비적인 논의문화를 오랫동안 답습해 온 탓일 것이다. 현재 우리 시대의 대학문화는 기성세대의 이론과 권력에 의한 극도의 상품적 가치만을 소비하고 있으나 더 이상 소비와 고정관념에 억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반대학’ ‘제2대학’ 행사가 진정한 대학문화의 결과물일 수는 없다. 단지 한 방법론에 불과하다. 진정한 대학문화의 의미를 찾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자신의 주체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풀지 못한다면 대학문화의 새로운 대안을 찾기란 어려울 것이다.

문화탄신

책 이야기

◇조지훈전집·완간...박복록, 박우진과 함께 ‘정복과’ 3시간으로 일컬어지는 조지훈(1920~1968)의 전집이 2차에 걸쳐 완간되었다.

조지훈 전집은 1973년 일지사에서 처음 나왔다가 절판되었고, 금년 나남출판사에서 누락된 논설과 한시 등 자료들을 보완해 3월과 10월 2차에 걸쳐 ‘시’ ‘시의 원리’ ‘문학론’ ‘수필의 비학’ ‘지조론’ ‘한국민족운동사’ ‘한국학 연구’ ‘재민담’의 전 9권을 완간했다. 전집 발간에는 분교 홍기삼 교수(국문학)와 고려대 홍일식 교수, 연세대 최정호 교수 등이 참여했다.

◇호모사피엔스의 156가지 신비... ‘머리통만 잘라서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 ‘여자는 몇 명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사람은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러, 혹은 어른이 다 되어서도 문득 가질 법한 갖가지 의문들이다. 인간은 우주보다 더 알쏭달쏭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니까.

호주 시드니 대학교수로 인류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저자는 ‘발생’부터 ‘죽음’까지에 이르는 이들 155개의 질문에 간명하고 흥미로운 대답을 제공한다. 스테픈 주안 지음, 출판사 시아, 가격은 6천원.

음악 이야기

◇슈베르트-피터 비스펠베이... 슈베르트의 ‘어른페지오네 소나타’는 늦가을이나 겨울의 분위기와 잘 맞아 떨어지는 감미로운 곡이다.

네덜란드의 젊은 첼리스트 피터 비스펠베이는 180년대 혁명의 프랑스인이 만든 첼로는 애잔하고 낭만적인 음색을 보여준다.

동시대의 악기와 스타일대로 연주하는 분야에서 비스펠베이는 이미 대가의 반열에 올라 선음을 이음반은 잘 보여준다. 채널 클래식스 출판.

◇스티프...91년 에든 버러 페스터벌에서 초연된 대단한 호평을 불러 일으켰던 ‘스티프(STOMP)’가 11월19일부터 30일까지 호암아트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8명의 배우로 이루어진 ‘스티프’는 빗자루, 성냥갑, 지퍼라이터, 쓰레기통, 무경 등으로 대단한 음악을 만들어 내 96년 아카데미상 시상식 프로그램으로 전세계 10억 시청자에게 중계되기도 했던 공연이기도 하다.

삼성영상사업장에서 주최하고 티켓은 2만원에서 6만원선(3458-1393).

AMINET

http://www.aminet.co.kr

인터넷 전용서비스와 훨씬 빠른 인터넷-아미넷 PC통신망으로 빙빙 돌아 연결되는 공맹이인터넷이 아닌 인터넷 전용서비스라 가장 빠르고 쉬운 아미넷 초특급 인터넷, 아미넷으로 정보작용을 비행하십시오.

AMINET은 초특급 인터넷 통신서비스입니다.

전용서비스니까 접속은 바로바로, 검색은 빨리빨리! 아직도 촘촘하게 PC통신으로 인터넷하는 원시인이요! 아미넷은 오직 인터넷만을 위한 서비스니까 마우스를 잡는 순간이 바로 세계와 만나는 순간 - 아미넷과 함께라면 당신은 출몰한 사이!

사이버 세대는 Cyber City로 모여라!

채팅이면 채팅, 게시판이면 게시판 - PC통신에 있는 건 다 있으면서도 토요일 밤 12시에도 정체가 없이 생생 들어가는 알찬 통신서비스, Cyber City - 아미넷에서 직접 운영하니깐, 키크, 키크가 줄줄 - 동호회에서 자료실까지 딱한 서비스는 여기 다 있다!

http://www.aminet.co.kr

인터넷 무료교육

- 일시: 매주 화, 수, 목 오후 1:30분~5:30(4시간)
- 장소: 신사동 아미넷 교육장
- 신청방법: HELP DESK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

■ 아미넷 HELP DESK : 서울시 종로구 적성동 86번지 현대전자빌딩 TEL : 220-1140 FAX : 723-1140

가맹신청은 가까운 대리점으로 나이스콜 코퍼레이션 TEL. 02-934-0036 E-mail. HTP001 @aminet.co.kr 인터넷이메일 TEL. 02-501-6937 E-mail. HTP002 @aminet.co.kr 코스모스텔넷 TEL. 02-534-5937 E-mail. HTP003 @aminet.co.kr 대원데이터시스템 TEL. 02-629-5000 E-mail. HTP004 @aminet.co.kr 한국텔 TEL. 02-876-7942 E-mail. HTP005 @aminet.co.kr 에버리얼 TEL. 031-878-2638 E-mail. HTP006 @aminet.co.kr 아인정보통신 TEL. 02-3448-0706-7 E-mail. HTP007 @aminet.co.kr

정액쿠폰 판매 실시

주차관리 사무실에서 구입가능

총무처(처장=염준근·통계학)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주차유료화와 관련해 정액쿠폰이용자를 위한 주차주차요금액내역을 밝혔다.

쿠폰금액내역은 아래와 같다.

정액쿠폰 구입방법은 각단체 교학과나 총무과에 비치된 주차장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총무과에서 확인을 받은후 주차관리 사무실에서 쿠폰을

구입하면 된다.

한편 총무과의 오광진계장은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들은 안내장이나 팜플렛, 초청장 제작시에 본교가 주차유료화를 실시하는 것을 미리 알셔서 참석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액쿠폰금액 내역서

구분	쿠폰가격	주차시간	비고
학회, 세미나 발표회	₩1,000	4시간	초과시 일반요금적용
워크샵참석차량	₩2,000	8시간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입학시험(전월일)			
시간강사(주1회 출강강사만 해당)	₩1,500	1일	주차증(TAG)을 이용한 월, 학기단위 납부 방법중선택하여 사용
논문심사위원	₩1,500	심사당일 1일	

자료검색 쉬어진다

도서관 12월말 서버교체 예정

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학)은 오는 12월말경에 기존의 렌탈사 서버를 교체하고 새 서버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검색에 더욱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색인을 수록한 컴퓨터를 말하는 것이 새 서버는 기존의 것보다 전송 속도가 개선되어 자료 이용에 있어서도 그 성능이 높은 것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개혁평가에서 본교가 종합학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받은 국고 지원금 13억 중 5억이 지난 14일 도서관 서버교체 작업준비에 지원됐다. 이에 교체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도서관 전산실은 LAN(근거리 통신망)공사가 마무리되어 컴퓨터를 선정, 납품이 완료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서버 설치장소는 전산실과 붙어있는 1층 열람실인 관계로 "1층 열람실 공간이 10평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전산실 이동전 계획이 밝혔다.

학생의견 수렴제 시행

수업 질 향상 유도

교원업적평가의 일환으로 96학년도 2학기 수업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시행이 지난 1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전체 전임교수 및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이에따라 연구부(부장=정태섭·역사교육)에서는 협조공문을 각 교수들에게 띄운 상태다.

시행결과를 단과대학 임직원위원회와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심의, 평가받게 되며 이것은 교원업적평가시 점수로 계산되지는 않으나 교수 본인의 차후 수업개선 및 해당학부(과)의 교과목 개·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승진 및 재임용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이번 2학기 강의 중

수업내용을 선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시행대상 교과목은 자신이 주관하는 담당교과목 중 최소 1교과목이상을 선정, 시행해야 한다.

학생의견 수렴시행 설문내용은 △교수방법 △학생과의 관계 △수업의 조직과 부담 △교수효과와 학생성취 △강의구성요소에 대한 평가로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진다.

또한 수업에 대한 교수 학생의견 수렴 시행과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강의평가도 실시될 예정이다. 강의평가란 울12학기 수업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 이것 역시 점수로 계산되지 않으며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중선위 선거예산 및 결산 공개

예산안 대부분 집행...잔액 내년 단과 선거 사용

제2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전성국·컴공4 이하 중선위)와 구장주(야간경영4)·원진욱(사4) 선거운동본부가 선거 예산 및 결산을 공개했다.

중선위는 총 1천350만원의 예산 총액중에서 1천2백73만1천4백50원 상당의 금액을 선거과정에서 지출한 것으로 결산을 끝낸 상황이며, 차감잔액 76만8천5백50원은 후보자 이동록 단과대의 투표미달이 발생한 공과대 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사용된다.

선거결산 내용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총학·총여 정책자금집, 전체 공보집 등 선거자료집=6백16만5천 원 △승항기기 임대=1백만원 △후

보자 사진촬영=70만원 △식대=90만원 △여객기, 현수막=74만7천원 △부표용지=17만9천원 △경상비=79만4백50원 △선거운동본부 지원비=총학·30만원, 총여·30만원, 총대·10만원 △중선위 운영비=35만원 △가타(중선위 뒷풀이비, 복사비 등)=80만원 등이다.

한편 구장주·원진욱 선거운동본부는 본과대, 경상대 등 7개의 단과대와 중앙선거운동본부로부터 받은 총5백10만원의 수입금 중 총 5백7만7천원을 지출해 2만3천원의 차감액이 남았다.

지출내역을 보면 △신문4천부=30만원 △자료집 편집=30만원 △명절5백장=7만원 △리플렛 3천부

=43만7천원 △선전물(구조물 제작비 포함)=45만원 △단체복 1백벌=1백19만원 △경상비=80만원 △후보자 의상=55만원 △가타(문예선전대, 후보자 경상비등)=9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건축대전 특선·입선 김중관·이훈군 수상

한국건축학회회가 주최한 제15회 대한민국 건축대전에 공모한 김중관(건공 3)군과 이훈(건공 4)군이 각각 특선·입선했다.

건축대전 수상작은 오는 12월1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교수설문조사 보고 및 토론회 개최

교수 복지 및 교육환경 설문 분석

서울캠퍼스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에서는 오는 28일 개교 90주년기념 문화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교수설문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4시부터 회장 김익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조의연(영어영문학)교수의설문조사결과보고와 신재호(전자공학), 심익섭(행정학), 이기동(사학), 이영환(경제학), 이종준(수학)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인 지정토론, 그리고 질의 및 응답의 순서로 이어진다.

교수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교수 복지 및 교육환경에 관한 설문지를 제작해 교수들에게 배포하고 그중 1백83부를 수거해 분석작

업했으며 주요내용은 복지문제와 연구 및 강의환경, 학교행정 및 기타제도, 교수회 등이다.

"이번행사에 대해 김익기 교수는 "교수회 역사상 처음 마련된 공개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히며 "학교의 여러 문제에 대해 교수들이 다양한 의견제시를 하고 교수회와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많은 교수의 참여를 요청했다.

생활 로고·도안 공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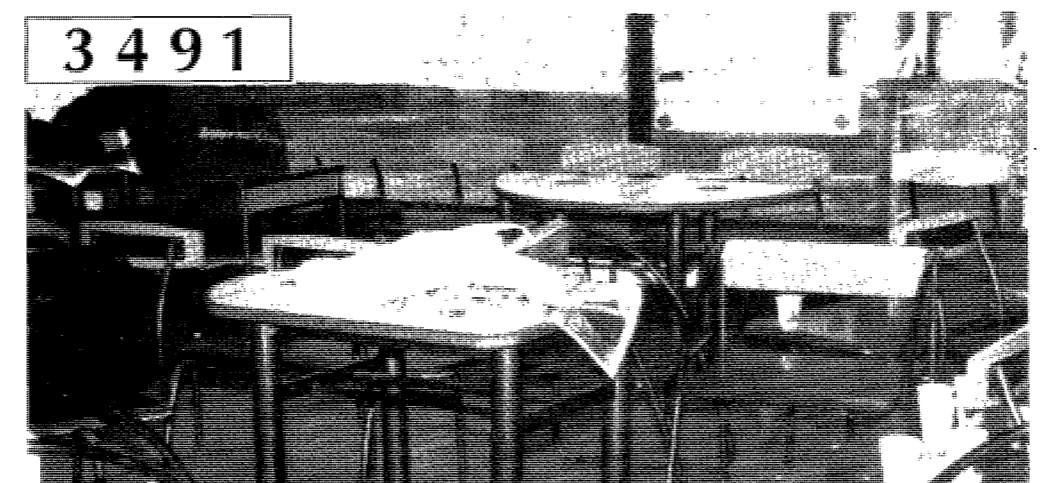
본교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 이하생활)에서는 생활 출범 준비의 일환으로

로고와 도안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동아리 구성원이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 부문은 △생활로고 △자판기용 종이컵 도안 △자판기용 전면 광고 패널 도안이고 생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이 된다.

접수는 생활 사무국(회화관 1층)에서 오늘(25일)부터 다음달(12월) 6일까지 받으며 공모 요령은 다음과 같다.

△생활 로고는 형식에 제한 없음 △자판기용 종이컵 도안-A₄규격 30cm×20cm △자판기용 전면 광고 패널 도안-A₄규격 60cm×40cm △1인이 세부문 모두 응모 가능하며 캐리커처, 만화, 삽화 등도 가능.



◇내 방이라면... 지난 9월초 동아리연합회는 학생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회관 1층 로비에 탁자와 의자를 갖추었는데, 회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어지럽힌 쓰레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우리를 방불케 해, 여기저기 날부러져 있는 쓰레기들로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이 무색할 지경. 사진은 지난 23일 학관 1층 로비 모습. (김정희 기자)

음악대 교환학생 선발

학술교류부(부장=이원부)는 지난 18일 학교성적, 일본어 테스트, 면접 등을 통해 음악대교환학생 3명을 선발했다.

선발자 명단은 이세호(일문2), 김현호(일문3), 임성욱(인도불교 석사과정)군으로 내년 3월경 일본 음악대로 파견된다.

한편 해외행정연수 신청자 8명이 본교와 자매협정을 맺은 미국 하와이대와 미시간주립대에 7주에서 8주간 어학연수차 각 4명씩 파견된다. 연수기간은 하와이대가 97년 1월4일부터 2월28일까지, 미시간주립대는 97년 1월8일부터 2월28일까지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이뤄지는 것이다.

한·중 국제학술회의 개최

동양어문학회(회장=임기중·국어국문학)는 오는 29일 오후2시 개교 90주년기념 문화관 세미나 3실에서 한·중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해외의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 말과 글 교육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에따른 국내지원을 모색하기위해 열린다.

본교 임기중교수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북경대 장민 교수, 중앙민족대 태광부 교수, 북경외국어대 모춘대 교수가 중국대학의 한국 말과 글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점과 교육과정, 교재, 교수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청주대 김갑기 교수, 본교 김해숙, 황종연 교수가 토론에 참가한다.

제9대 졸업위원회장 박상욱군 당선

제9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서 단독 출마한 박상욱(경제3)군이 투표율 54.5%, 찬성 93.3%로 당선됐다.

지난 11월과 12월 이틀간 도서관 앞에서 진행된 투표결과 현재 3학년 과대표를 임하고 있는 55명중 30명이 참가해 찬성 28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집계돼 박상이 확정됐다.

학과소식

가정교육과 '사할 스님들의 영광과 건강'이란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오는 26일(화) 학림관 3층 교육매체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

전자공학과 지난 23일 대학원 최광순(전자공학 석사과정)군의 1996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일어일문과 제14대 일문과 학생회장선거에서 소기용·이경일씨가 참여율 69%, 95%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학전무대

기건물은 냉장고

○...대부분 사람들은 '날이 추워져 첫눈이라도 와야 겨울인줄 알지만 본교학생들은 기건물에만 들어가면 겨울이 온 줄 안다.

기건물의 알파한 벽, 얼나는 물건이러곤 감싸주는 형광등 뿐인 강의실도 있어 학생들 추위에 오늘 오늘.

이에 해마다 이른 종강을 바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고, 한 교수 얽은 손을 매만지며 '야' 인성들어, 너희들은 젊은 열기에 학구열이라고 있지

도박의 전당

○...모, 학생회실을 지나갈 때 들리는 '짹짹' 동전소리와 '짜짜' 하루 부딪히는 소리. 아무리 학생들의 무한한 자유공간인 학생회실이라도 듣기에는 거북한(?) 소리가 자주 난다.

소리에 민감한 한 학생 내년 후배들이 들어와 무얼 배울지 걱정엔 찬 찬하다.

"학생회실은 도박산업 양성소?"

야쿠르트 아줌마의 비애

○...지난 목요일 해화관 2층 한 구석, 야쿠르트 아줌마께서 공중전화기를 때리고 치고 울며 부서지거 일보직전이었다.

전화기 곁에 "교양아님"이라고 쓰여있는 말을 믿은 아줌마는 계속 전화하기를 시도하지만 전화기의 액수는 잘못 나 타내고 설상가상으로 통화도 되지않는데 돈만 먹었다고.

이에 아줌마는 "모든 거짓말은 '이건 진짜야'로 시작한다는 법칙을 잊어버린 내 탓이오"

현법은 낡은(?) 법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장 제21조 1항의 내용.

지난 10월 말부터 전국 서점들이 '금서목록'파문으로 흥역을 앓고 있어 이조항이 무색할 지경. 이목에는 일반 가판대에서 합법적으로 팔리는 주간지까지 포함되어 있어 더욱 답답하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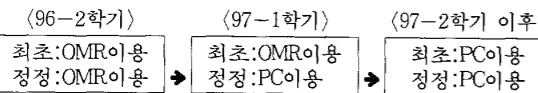
이에 한 학생은 "헌법이 너무 낡은 헌 법이어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모양이군"

수강신청방법 변경

1997학년도부터 수업의 규모를 정형화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 시키고, 학기초 수업운영의 조기안정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방법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함.

- 수강신청의 시기
수강신청의 시기는 학기말에 다음학기 수강신청을 하며, 수강신청정정은 개강후 1주일 이내(소정기간)로 한다.
※97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기간:96.12.4(수)~12.6(금)
정정기간:97.3.5(수)~3.7(금)

- 수강신청의 방법
수강신청은 종전의 OMR카드를 이용한 방법에서 LAN으로 연결된 교내의 실습실, 연구실 등의 모든 PC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 수강인원의 제한
1)최초수강신청시 교양필수과목, 실형실습교과목, 회화교과목, 교양선택교과목 등에 대하여는 반 편성 기준 또는 실험실습실, 강의실의 수용규모에 따라 수강인원을 제한한다.
2)수강신청정정기간에는 전 교양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하며, 교과목의 수강제한인원 범위 내에서만 수강신청 정정이 가능하다.

- 유의사항
1)수강신청정정기간에는 전 교양교과목(전공교과목 제외)에 대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하게 되어 있으므로 최초 수강신청기간에 필히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2)수강제한인원 범위 내에서만 정정(교과목 추가신청)이 가능하므로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97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은 종전과 같이 OMR카드를 이용하여, 수강신청 정정부터 PC를 이용하므로 착오없이 바람.
4)PC를 이용한 수강신청 메뉴얼은 정정기간전 별도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교무처장

초청합니다

금번 교수회에서 실시한 '교수 복지 및 교육환경에 관한 설문'조사에 여러 교수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교수회에서는 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꼭 참석하여 주셔서 성과 있는 보고와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교수회 및 학교를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뜻을 같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교수 설문조사 보고 및 토론회
- 일 시:1996년 11월28일 목요일 오후 4시~5시30분
- 장 소:개교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 2층 제3세미나실
- 사 회:교수회 회장 김익기
- 발 제:교수회 총무 조의연
- 토론자:신재호(공과대학전자공학), 심익섭(사회과학대행정학과), 이기동(본과대학 사학), 이영환(경상대학 경제학과), 이종준(경상대학 경제학과)
- 질의 및 응답:전체 참여자

동국대학교 교수회

대학문화 창조 시리즈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를 만들어 나갑시다)

실천사항

- 다음 강의를 듣는 학우를 위해 강의 끝난 후 쓰레기 줍고, 책상 바로 해 놓고 떠납시다.
- 광고홍보물을 지정된 게시판에 광고 게재 기간을 표시하여 전시하고, 기간이 끝나면 부착자가 반드시 수거합니다. (기간명시가 안됐거나, 기간의 부착물은 누구나 땔 수 있음)
- 교내 도로바닥에 페인팅하지 맙시다. (페인팅이 제거되는데 1년이상 걸리고 캠퍼스의 모든 구성원의 공유환경이므로 특정 집단의 장기간 점유는 옳지 못함)

동국대학교 여교수 일동

생활 로고·도안 공개 모집

- 공모대상:동국 전 구성원(교수, 직원, 대학원생, 학생등)
- 공모부문:가. 생활로고
나. 자판기용 종이컵 도안
다. 자판기용 전면(前面) 광고 패널 도안
- 도안내용:가. 생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로고나 도안 (협동, 공동등)
나.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
- 접수기간:96. 11. 25(월)~12. 6(금)
- 접수마감:96. 12. 6(금), 오후 5시까지
- 접수서류:가. 로고/도안
나. 로고/도안설명(원고지 약 2~4매 분량)
- 공모요령:가. 생활 로고는 형식에 제한 없음
나. 자판기용 종이컵도안 (A4규격, 30cm×20cm)
다. 자판기용 전면(前面) 광고 패널 도안 (A3규격, 60cm×40cm)
라. 1인이 세부문 모두 응모 가능하며 캐리커처, 만화, 삽화 등도 가능함
- 당선시장:가. 각 부문 대상 1편-칠십만원(₩ 700,000)
나. 각 부문 가작 1편-삼십만원(₩ 300,000)
※응모하신 모든 분에게 참가 기념품을 증정하며, 당선작은 추후 발표되었습니다.
- 접수 및 문의처:생활 사무국(회화관 1층)
☎ (교내)260-3590(2), FAX (02)271-3129

“ 지난 1차 공모시에 많은 작품이 접수 되지 않아 재차 공모하는 것입니다. 이미 응모해주신분께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